

## 기성회비 폐지에 마땅한 대안없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판결… 최근 반환 명령 잇따라

정부, 수업료와 기성회비 통합 징수하도록 법안 개정 나서

국·공립대학교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대는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11일 서울대를 포함한 13개 국·공립대학교 졸업생 4591명 대상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법원은 지난 5월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서울대학생 126명에게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월 소송 대상자인 서울대 학생 7명, 카이스트 학생 27명에게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서울대 기성회는 총 1억 6218만원, 카이스트 기성회는 총 2억 2550만원을 반환하게 됐다.

학생과 기성회간의 질긴 공방끝에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각 대학 기성회의 항소심에도 재판부는 지난 해 11월 7일,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납부였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했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의 재정난을 보조할 수단으로 정부 훈령에 따라 도입됐다. 하지만 대학이 국가 측의 규제와 관리가 이뤄지는 수업료대신 자율로 운영되는 기성회비를 등록금 인상에 압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사립대학은 1999년에 기성회비를 폐지했으나, 국·공립대학은 계속해서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법원 측의 지속되는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도 대학 측이 기성회비를 돌려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 국·공립대학 사무국장들은 “법원이 대학에 기성회비 반환명령을 내려도 현재 대학 내 예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각종 지원은 줄어드는 실정에 대학에 일방적인 요구를 할 경우, 파산 신청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해 운영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기존 등록금의 평균 18%정도를 차지하던 수업료를 전면 개선해 통합 징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제주대 또한 현재 7명의 학생이 기성회

강수빈 기자

## ‘청춘, 만남과 도전’ 2014 학습페스티벌 개최

프리젠테이션 ‘TOP스타’ 대상

아라토론대회 ‘방구석’ 우승

기초교양교육원(원장 김치완 철학과 교수)이 주최한 2014 학습페스티벌이 11월 21일부터 이틀간 교양강의동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도전하는 용기를 주기 위해 열렸다.

21일 열린 제3회 JNU 프리젠테이션 페스티벌에는 ‘우리 사회에서의 다음이란? 다문화 사회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본선 대회가 열렸다.

발표력과 독창성, 내용 구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TOP스타’ 팀(팀장 오다연 생활환경복지학부 4)이 대상을 받았다.

이어 열린 제5회 아라토론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8개팀이 본선에 참가했다.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11월 25일 ‘2014 학습페스티벌’ 시상식이 접견실에서 열렸다.

결선에서는 총 6개의 논제 중 ‘우리는 꼭  
취직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방구석’ 팀  
(팀장 양혁준 무역학과 3)과 ‘끌판왕’ 팀  
(팀장 강소현 초등교육과 1)이 토론을 벌였

토론대회 우승은 설득 방식에서 다양한  
사례 제시와 일관적인 접근으로 상대팀을  
공략한 ‘방구석’ 팀이 차지했다. 정현 기자

## 제47대 총학생회장에 ‘SO아라’ 원일권 당선

4357표 획득, 지지율 58.35%

‘소공녀’ 총여 찬성 67.6%로 당선

11월 18일 치뤄진 2014학년도 제47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SO아라’ 선거운동본부(정·원일권 영어영문학과 4, 부·현지훈에너지공학과 3)가 당선됐다. 또 총여학생회에는 ‘소공녀’ 선거운동본부(정·홍은혜전자공학과 3, 부·김수윤 환경공학과 2)가 선출됐다.

총학생회는 선거 최종 투표집계 결과 ‘SO아라’가 58.35%의 지지율인 총 4357표를 획득해 총 2992표(지지율 39.23%)를 받은 ‘신세계’에 1365표 앞서 당선됐다. 이날 무효표는 181표(2.42%)이다. 이번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9410명 중 7467명이 투표해 작년 투표율(79.98%)과 비슷한 79.3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원일권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학우들과 학내 인문의 목소리를 들으며 일만아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준비했다”며 “조심, 열심, 뒷심을 항상 되새기며 총학생회장을 준비했는데, 앞으로 초심을 잊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총학생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4학년도 제47대 총학생회에 ‘SO아라’ 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됐다. 원일권(영어영문학과 4·원쪽) 총학생회 당선자는 “앞으로 초심을 잊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총학생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육 발전하는 총학생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총여학생회 선거에서는 단독출마한 ‘소공녀’가 전체 유권자 4539명 중 3481명(76.69%)이 참여한 가운데 총 2353표(지지율 67.6%)를 얻었다. 반대표는 1095표(31.46%)이며 무효표는 33표(0.94%)이다. 흥은혜 총여학생회장 당선자는 “여학우 뿐만이 아닌 일만아리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겠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해 학우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소공녀가 되겠다”고 말했다. 백승규 기자

## 영어수업시연대회 C.T.E팀 최우수상

11월 20일 대구 그랜드호텔서

상호작용·IT 접목에서 높은 평가

제주대 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GTU) 사업단(단장 김의상 초등영어교육전공 교수)이 11월 2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영어수업시연대회 (I am a Global Teacher: IGT)’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C.T.E팀(팀장 조주영 초등실과교육전공 2)이 최우수상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Look out for Geography팀(팀장 양재원 지리교육전공 2)은 GTU협의체상을 수상하는 등 제주대 참가팀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제주대 참가팀은 다른 대학 팀보다 수업의 독창성과 완성도,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수업과 IT기술의 접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C.T.E팀은 ‘화산과 지진을 주제로 한 STEAM 교육’, Look out for Geography팀은 ‘동양과 서양의 생각자’를 주제로 시연했다.

조주영씨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수업설

계와 영어수업에 대해 많이 배웠고 좋은 결과까지 받게 돼 더욱 기쁘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글로벌 교사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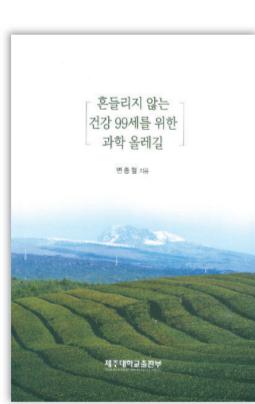
이번 대회는 교육대·사범대 학생들의 글로벌 교사로서의 교육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개최됐다. 제주대를 비롯해 경북대·경인교대·한국교원대 등 4개 GTU 지원사업단에서 각 2개 팀씩 참여했다. 부찬우 기자

## ‘양적연구로 논문작성하기’

12월 3일 글쓰기 워크샵 개최

기초교양교육원(원장 김치완 철학과 교수)은 12월 3일 국제교류회관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양적연구방법론으로 논문작성하기’ 글쓰기 워크숍을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11월 30일까지 기초교양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기초교양원 교양교육센터(☎ 754-2056~7) 김해건 기자

제주대학교 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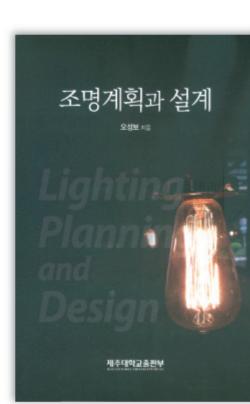


### 흔들리지 않는 건강 99세를 위한 과학 올레길

1 | 변종철 지음 | 313페이지 | 18,000원 |

한 줄의 시는 과학의 숨결이며, 한 포기의 양배추는 과학의 흔적이며, 한 마리의 한치는 과학의 산물이며, 파도를 이해하고 있는 바다는 과학의 보물단지이다.

『흔들리지 않는 건강 99세를 위한 과학 올레길』 일상생활에서 시 한 줄을 읊는 것,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올레길을 걸으면서 양배추와 당근, 한 잔의 막걸리를 음미하면서 한치와 광어, 다양한 색깔에 취하면서 바다와 하늘을 품는 것이 건강한 99세를 누릴 수 있는 첨경이다.



### 조명계획과 설계

1 | 오성보 지음 | 243페이지 | 18,000원 |

빛은 공기나 물과 같이 생명체에 꼭 필요한 물리적 환경요소이다. 이러한 빛이 과다하게 되었을 때 인간에게 해가 됨은 물론 동식물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조명계획과 설계』는 조명이론을 중심으로 생태조명계획에 대한 제주도 특성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해 보려고 노력했고,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물론 건축공학, 산업디자인 및 관광개발·경영 관련 학습자들의 기본 교과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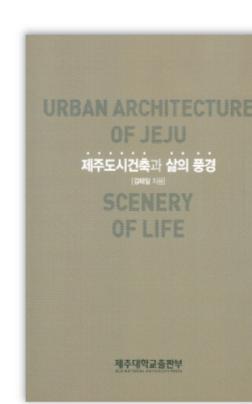


### 윈드서핑

1 | 양명환·김덕진 지음 | 219페이지 | 13,000원 |

햇빛에 반짝이는 세일을 닦고 나비처럼 산들산들 움직이다가 바람을 만나면 하얀 꼬리와 포말을 일으키며 물 찬 제비처럼 빠르게 물위를 질주하는 모습은 마치 환상적인 스케이팅 선수의 동작과도 흡사하다. 바람의 힘으로 속도감에 도전하는 스포츠, 바로 윈드서핑이다.

『윈드서핑』은 윈드서핑의 기초이론과 기술을 터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서적이다.



### 제주도시건축과 삶의 풍경

1 | 김태일 지음 | 243페이지 | 18,000원 |

생태도시, 안전도시, 녹색도시, 도시재생,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역 곳곳에는 넓은 도로가 건설되고 도서관과 미술관, 아트센터가 개관되고 수많은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시건축과 삶의 풍경』을 통해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를 더욱 값지게 하기 위해 도시건축의 질을 높여야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 물리적 환경과 삶이 녹아 스며든 아름다운 풍경이 형성된다는 취지이다.



### 천문항해학

1 | 안장영·최찬문·이창현 지음 | 338페이지 | 15,000원 |

현재 선박에서 위치를 측정할 때 연안항해와 대양 항해에 관계없이 레이더와 GPS에 의존하고 있으며 천문항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천문항해학』은 소형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필요한 요소를 계산함으로써 표를 이용하여 구하는 지금까지의 방법보다 더욱 정확한 위치를 구할 수 있을뿐더러 위치 산출에 필요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실질적으로 해상에서 이용되는 내용만을 발췌하여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다.

## 사설

## 국립대 기성회비 논란, 국가가 적극 나서야

기성회비 제도는 나라살림이 어려웠던 1963년 옛 문교부 훈령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대학이 재정난을 겪자 정부가 법률이 아닌 문교부장관 훈령으로 각 대학이 연구비와 시설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기성회를 조직, 수업료와 수업료 이외에 돈을 더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수업료 항목은 대학들이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반면 기성회비는 징수와 관리가 대학 자체에 맡겨져 있다. 사립대학은 이후 기성회비를 1999년 폐지했으나 국립대는 여전히 존속 시켰다.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업료보다 훨씬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국·공립 대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 411만4500원 중 수업료는 105만2100원으로 20%에 불과하다. 반면 기성회비는 306만2400원으로 74.4%에 이르고 있다. 제주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제주대 사회계열기준 2014 학년도 등록금 328만원에서 수업료는 74만4000원에 불과하지만, 기성회비는 무려 253만6000원이다. 77%를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2012년 기성회비 징수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 이후 전국에서 반반 청구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는 4591명의 대학생들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전국 13개 국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립대학들은 임박한 대법원 판결도 1·2심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당장 등록금의 80%에 달하는 기성회비를 걷을 수 없다. 전체 직원의 20~30%를 차지하는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근거도 사라진다. 또한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와 시설비 외에는 예산편성이 어려워 그동안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비로 추진해온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학생 장학금 편성도 불투명해진다.

이에 따라 전국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기성회 회계 대체법안의 시급한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징수하고 이를 일반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하려는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공립대학 운영경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열악한 재정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성회 회계가 폐지될 상황에 놓여 국립대학 재정운용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제는 국고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 국회가 조속히 기성회 회계 대체법을 서두르고, 정부는 국립대에 대한 지원 확대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 정책선거를 구현하는 학생회를 희망하며

학생회 선거가 지난주에 치러졌다. 다른 대학들에서는 선거참여율이 저조하여 재선거를 치르기도 하고 학생회 선거에 대학본부가 개입했다 하여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부정선거로 탄핵을 받기도 하는 등 잡음이 크다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지난해 제주대신문 기획기사로 학생회 선거의 금권선거, 인맥선거, 스폰서 선거의 문제점을 다룬 바 있음 만큼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올해 학생회 선거에서 그 문제점이 얼마나 극복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만 충분한 자성의 노력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선거운동원들의 식비를 아끼기 위해 밥을 짜이며 고, 선거에 쓰이는 의복의 대여나 반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노력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정책을 가장 많이 본다고 답하는 학생들이 많아 금권선거, 인맥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 놓지 않게 학내 민주주의를 정착하려는 소신파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상대 후보 진영으로부터 인맥을 근거로 여러 차례 회유 전화를 걸어왔으나 정책을 보고 선택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끌내 점지 않았다는 새내기의 발언도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좁은 지역사회라는 이유로 유권자로서의 개개인의 소신을 포기해온 것에 대해 반성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 모두가 우리 대학 사회의 선거 문화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이는 것들이었다.

어떤 후보자들은 당선 후 공약을 지키지 않을 때 언제라도 쓴소리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여 청년들의 순수함이 엿보이기도 하였다. 인간의 심리적 특성상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을 때 마음이 다르다하지 않는가. 하물며 공약이라는 것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선자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드물고 학생, 대학본부, 환경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조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선자들은 초심을 잊지 않는 자세로 마음을 다잡고 공약실천에 매진해야만 할 것이다.

정책선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당선자들이 공약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보고하는 자리를 일정기간마다 마련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득이하게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의 경우도 당선자들이 해온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세로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쌀쌀해지는 계절, 이른 출근길이나 늦은 퇴근길에 학교 주요 도로변에 늘어서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후보유세를 펼치는 학생들을 보면서 선거철이 도래하였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도 선거 운동을 꼭 저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아쉬움도 든다. 정책선거 문화를 키워나가려는 노력에 더하여 다음에 치를 학내선거에서는 선거 운동 방식에 뭔가 다른 아이디어를 보태는 기원을 마련하길 제안한다.

## 형식적 기록에 그친 장애대학생 복지지원 평가

## 교양동 장애인화장실 손잡이 반대로 설치돼 불편

## 장애인학생지원센터 “현장 확인 후 바로 시정하겠다”

제주대가 2011년 장애대학생 교육 복지지원 실태조사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지만 여전히 장애학생들 의 불편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는 장애학생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해 문제점을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주대는 2011년 장애대학생 교육 복지지원 실태조사에서 교수·학습과 시설·설비 영역에서 최우수, 선발 영역에서 우수 학교로 선정됐다. 그러나 정작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못 설치돼 있거나 공간이 부족해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최현태(사회학과 3) 장애인인권대학원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긴 하지만 불편한 점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교양강의동 장애인 화장실의 손잡이는 규정과 정반대로 설치돼 있다. 뿐만 아니라 본관과 학생회관에 마련된 장애인 화장실은 공간이 좁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규정상 여닫이문을 설치할 경우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본관의 경우 안쪽으로 문이 개폐돼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면 문을 닫는데 어려움이 있다.

각 건물마다 설치돼 있는 장애인 경사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사회과학대학 서쪽 경사로의 경우 출입문과 평행으로 배치돼 있다. 출입문을 통과하면 우측으로 휠체어를 돌려야 한다. 하지만 경사로와 자동문의 폭이 모두 좁아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사회과학대학 서쪽 출입구에는 장애인 경사로가 수직으로 설치돼 휠체어 이동에 불편을 주고 있다.

따른다. 한 장애학생은 “학생들과 함께 승강기를 탈 경우 공간이 없어 다음 차례를 기다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장애학생을 위한 승강기가 다른 학생들의 이용에 의해 고장이 잦다. 현능주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관은 “사회과학대학 서쪽 경사로의 폭을 넓히면 인도의 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화장실 문제는 현장 확인 후에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장애학생의 복지는 최우선으로 생각해 내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의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현 기자

## “학점은 내가 관리한다” 자기학점관리시스템 구축

## 오는 12월 학사과 최종점검 통해 학생들에게 선보일 예정

## 수강·졸업 등 이수 학점 정보를 수시로 확인 가능해 큰 도움

학생 학점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자기학점관리시스템이 12월 말 구축된다.

자기학점관리시스템은 △학적 기본정보 △평일학점 △교양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기타학점이수 △취득학점이수 등을 자세히 분류해 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학생들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얼마나 이수했는지 알기 위해 학과사무실 방문의 빈도

받았다. 하지만 과목이수표는 학과 조교와 학생이 직접 계산해야 하므로 오차의 위험성을 뛰고 있다.

자기학점관리시스템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현재 학생이 이수한 학점이 모두 계산돼 있어 정확한 학점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은 수강신청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 취득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학업계획을 원활하게 세울 수 있다. 또 학점이 수강과 졸업 등 이수 학점 정보를 수시로 확인 가능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백승규 기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은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교내 모든 학과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학과 조교들은 시스템의 오류 사항을 점검하고 학생 개개인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학과명이 변경됐거나 전공기준학점이 변동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학사과에서 12월부터 최종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정 학사과 실무관은 “본인의 학점이수 상황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며 “시스템이 도입되면 수강과 졸업 등 이수 학점 정보를 수시로 확인 가능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런칭하기 위해 하반기 내에 구체적인 상품 기획을 진행키로 했다.

사업단은 박람회에서 양체류와 이를 활용한 가공제품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홍보시켰고, 시식행사와 전시판매를 통해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해건 기자

박소연 기자

## 양체류사업단 국제식품산업전 참가

## 서울 코엑스에서 4일간 열려

제주대 제주양체류 RIS사업단(단장 임상빈 식품생명공학과 교수)이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4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수혜기업들과 함께 참가해 양체류 가공제품 충보 및 판매 활동을 벌였다.

양체류 RIS사업단은 홍보관을 운영해 제주양체류제주, 제주농장야채수, 제주친환경야채피를(브로콜리),

양배추, 적양배추, 콜리플리워 등,

제주브로콜리발효고추장, 브로콜리발효액, 깡망떡갈비(양배추), 제주양배추화장품 등 제주산 양체류를 활용한 제주도내 기업 제품의 체험(시식, 시음)행사와 전시판매, NS홈쇼핑, 아웃백 등 국내 유통 바이어들과 상담을 실시했다.

비아이들과의 상담에 H백화점, G백화점 등에서 제주친환경 야채피제품의 입점을 희망했고 한 흠푸드업체에서는 제주농장야채수 제품을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런칭하기 위해 하반기 내에 구체적인 상품 기획을 진행키로 했다.

사업단은 박람회에서 양체류와 이를 활용한 가공제품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홍보시켰고, 시식행사와 전시판매를 통해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해건 기자

##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최낙진

편집국장 강경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 제34회 백록학술상 공모

신문방송사에서는 제주대신문 창간 60주년을 맞아 제34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2.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30매 내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nu.ac.kr로 제출해야 함. ※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출판논문 응모 가능 ※ 원본 파일은 본인 이름,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
3.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기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4. 접수마감 : 2014년 12월 19일(금) 16:00까지
5.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6. 당선발표 : 2015년 신년특집호(2015년 1월 1일자)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요강

2015학년도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및 인원

과정	학과	모집인원		비고
		내국인	외국인	
석사학위	스토리텔링학과	23명	약간명	학과별 선발인원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함.
	심리치료학과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			

※ 외국인은 ‘외국인 입학전형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지원하는 학과의 정원 외로 약간명을 별도로 선발한다.

## 전형일정 및 장소

구분	기간 및 일시	장소	비고
입학지원서접수	2014. 11. 24(월)~11. 28(금) 09:00~1		





# 전파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아내는 탐사레이더 기술

학술기고 땅속을 투시하는 레이더



현승업  
통신공학 교수

누구나 한 번쯤은 레이더라는 말을 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레이더 기술이 많이 응용되고 있다. 공항에서는 주변 하늘을 날아가는 각종 비행기의 위치를 찾아내어 이착륙 시간에 활용하는 항공관제레이더(air traffic control radar)가 있고, 매일 뉴스의 마지막 일기예보에서 볼 수 있는 비구름 영상은 기상레이더(weather radar)로 획득한 것이다. 이외에도 경찰이 과속 단속을 위해서 자동차의 속력을 측정하는 스피드 캐리레이더(speed gun radar)를 비롯하여 최근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인접한 다른 차량을 감지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량충돌방지 레이더(vehicle anti-collision radar)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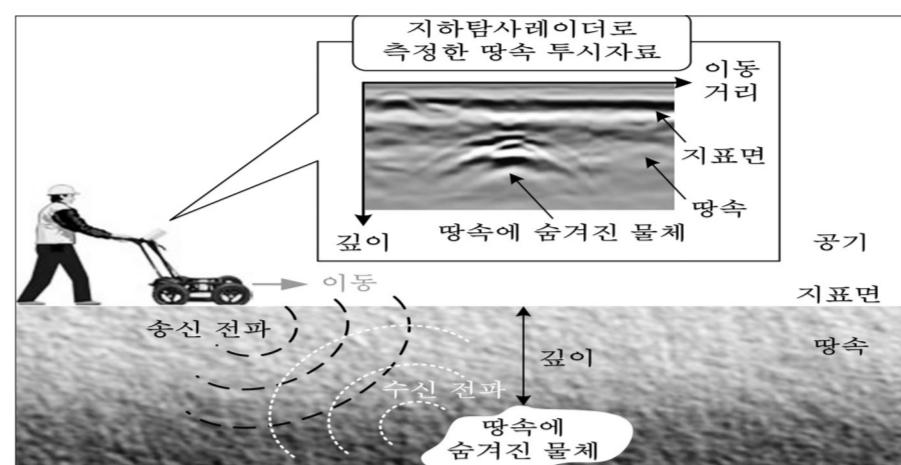
그렇다면, 레이더는 어떻게 물체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일까? 레이더는 전자기파(電磁波; electromagnetic wave) 중에서 전파(電波; radio wave) 영역에 해당하는 신호(信號; signal)를 조사할 대상에 해당하는 공간영역으로 보내고, 공간에 존재하는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되돌아온 신호의 크기 변화와 도달 시간을 측정 및 분석하여 물체에 대한 존재 유무와 위치 정보를 원격으로 알아낸다. 그래서, 레이더는 전파로 '무선탐지와 거리측정'한다는 의미에서 영어로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이라고 하며, 약자로 'radar'라고 부르는 것이다.

레이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군 비행기의 침투를 사전에 알아내기 위해 군용으로 처음 개발되었으며, 1940년대부터 민간용으로 해상, 항공, 기상학, 천문학 등의 분야에서 선박, 비행기, 비구름, 위성 등에 대한 위치, 속도, 방향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레이더의 기술을 이용하여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아낼 수 없을까?" 하는 의문에서 연구개발을 시작된 것이 지하탐사레이더(GPR; ground-penetrating radar)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지하탐사레이더의 원리와 응용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지하탐사레이더 원리

전자기파가 1초당 진동하는 횟수를 주파



일반적으로 땅속에서 되돌아온 전파 신호에는 불필요한 시스템 잡음(system noise)과 주변 환경요인에 의해 야기된 신호인 클러터(clutter) 성분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물체의 신호보다 매우 크고,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잡음과 클러터로부터 물체를 구별해 내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잡음과 클러터를 충분하게 제거해야만 원하는 물체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지하탐사레이더 시스템의 내부 잡음은 송신기와 수신기의 성능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동일 위치에서 여러 번에 걸쳐 획득한 수신신호들에 대해 평균을 취하면 경력하게 줄일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신호 성분인 클러터는 크게 3가지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안테나 자체에 의한 클러터(antenna clutter), 지표면 반사에 의한 클러터(surface reflection clutter), 땅속의 비균일성에 의한 클러터(subsurface inhomogeneity clutter)가 있다. 안테나 클러터는 안테나 자체를 충분히 광대역(wideband) 특성을 만족하도록 안테나 구조를 설계하여 해결할 수 있다. 지표면 반사 클러터는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 간의 거리를 적절하게 띄우거나 두 안테나 사이에 전자기파 흡수체(electromagnetic absorber)의 삽입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파가 보는 땅의 특성은 위치마다 심하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위치에서도 깊이별, 수분함량별로 크게 변하는 비균일성에 의해 불규칙적인 분포를 갖고 있어서 땅속의 비균일성에 의한 클러터는 제거하기 매우 어렵다.

이로 인하여 땅속의 비균일성에 의한 클러터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지하탐사레이더의 탐지성을 좌우한다. 이는 지하탐사레이더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는다는 것은 물체 이외의 땅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에 땅속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탐사대상이 되는 땅의 특성을 우선 잘 알아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레이더 시스템 각부에 해당하는 송신기, 송신안테나, 수신안테나, 수신기와 같은 하드웨어 설계를 비롯하여 측정한 수신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신호처리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지하탐사레이더의 응용 및 향후 발전 방향

빛의 주파수는 아주 높아서 지표면의 상태를 세밀하게 볼 수 있지만 땅속을 투시할

수는 없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을 투시할 수는 있지만 흐릿하게 보이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직접 땅을 파헤치지 않아도 땅속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투시할 수는 있어서 비파괴 검사용도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수용으로 땅속에 매설된 수도관, 가스관, 통신선로 등의 매설물 탐지와 최근 도로가 갑자기 학물되는 원인인 싱크홀(sinkhole)의 사전 탐지, 군용으로 불발탄과 지뢰의 탐지, 적군에 의해 침투용으로 몰래 굴착한 땅굴의 조기 탐지 등에 이용된다. 이외에도 고대 유적탐사, 지하자원탐사, 행성탐사 등에 이르기까지 지하탐사레이더는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최근 지하탐사레이더의 응용은 탐사대상이 땅속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건물 벽속의 노후 진단이나 누수탐지를 비롯하여 대테러 진압 작전에서 특수부대요원 진입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벽이나 문 뒤쪽 상태의 투시하거나, 공항검색대에서 사람의 옷 속에 은닉된 무기를 투시하여 항공기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는데도 탐사레이더의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또한, 인체 내부 진단용 의료영상장치와 캡슐형 내시경에도 탐사레이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하탐사레이더의 응용 및 향후 발전 방향

빛의 주파수는 아주 높아서 지표면의 상

태를 세밀하게 볼 수 있지만 땅속을 투시할

수는 없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을 투시할 수는 있지만 흐릿하게 보이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직접 땅을

파헤치지 않아도 땅속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투시할 수는 있어서 비파괴 검사용도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수

용으로 땅속에 매설된 수도관, 가스관, 통신

선로 등의 매설물 탐지와 최근 도로가 갑자

기 학물되는 원인인 싱크홀(sinkhole)의

사전 탐지, 군용으로 불발탄과 지뢰의 탐지,

적군에 의해 침투용으로 몰래 굴착한 땅굴

의 조기 탐지 등에 이용된다. 이외에도 고대

유적탐사, 지하자원탐사, 행성탐사 등에 이

르기까지 지하탐사레이더는 광범위하게 응

용되고 있다.

최근 지하탐사레이더의 응용은 탐사대상이

땅속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건물 벽속의 노후

진단이나 누수탐지를 비롯하여 대테러 진압

작전에서 특수부대요원 진입시점을 결정하

기 위해 벽이나 문 뒤쪽 상태의 투시하거나,

공항검색대에서 사람의 옷 속에 은닉된 무

기를 투시하여 항공기 테러를 사전에 방지

하는데도 탐사레이더의 기술이 응용되고 있

다. 또한, 인체 내부 진단용 의료영상장치

와 캡슐형 내시경에도 탐사레이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하탐사레이더의 응용 및 향후 발전 방향

빛의 주파수는 아주 높아서 지표면의 상

태를 세밀하게 볼 수 있지만 땅속을 투시할

수는 없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을

# 인권영화제로 장애인들의 영화(榮華) 누리길

< 봄이 귀하게 돼 이름이 세상에 빛남 >

기고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가 갖는 의미와 장애인의 현실



이 경 현  
제주장애인인권영화  
사무처장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는 제주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장애인연맹(DPI)은 생소할 수도 있어 먼저 제주장애인연맹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인권영화제를 소개하려고 한다.

제주장애인연맹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확보'라는 창립목적을 갖고 1986년 결성된 국제장애인단체다. 당시 장애인인권이 전무했던 척박한 사회환경속에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라는 장애인당사자 운동을 펼쳤으며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중심의 운동을 시민과 함께 하고자 2000년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개최한 영화제다.

## ◇장애인인권영화제가 탄생한 이유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장애인당사자들에겐 너무나 멀리 있고 너무나 갈망하는 단어였다. 장애인 인권은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던 우리 장애인당사자들의 이야기로써 투쟁의 시대였던 90년대를 지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로 태동하기 시작했다. 그 문화의 바탕은 제주에서 처음 불어 전국으로 확대됐다.

'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당사자들이 새천년의 염원을 담아 지난 2000년 제주에서 시작됐다. 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삶을 주제로 영상물을 직접 기획하거나 제작에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영화제로 장애인당사자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다룬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다. 또한 이 영화제에서 장애인영상가들이 제작의 어려움을 딛고 장애인인권을 다룬 영화가 제작되었으나 대중들에게 상영의 기회를 잃은 작품을 상영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하다.

왜 사람들은 영화를 감망하는가? 왜 사람들은 영화를 많이 볼까? 크리스티앙 메츠는 "언국이니 공연과 달리 영화는 '대중'을 갖고 있는 유일한 예술이다"란 말을 남겼다. 또한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이유는 '현실효과' 때문이란 주장을 했다. 현실효과란 단순한 재현수단이 아닌 새로운 표현수단으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며 비현실성을 현실화 하는 새로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화는 대중에게 하

늘 나는 슈퍼맨을 만들어주기도 하며, 스타워즈에서처럼 광활한 우주를 향해 할 수 있게 한다. 때로는 백 투더 퓨처처럼 시·공간을 지나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이동하게끔 할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영화이다.

이러한 이유로 더욱 더 영화를 감망하고 있는지 모른다. 자신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대중들에게 올바로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영화를 선택하고 있는지 모른다. 어쩌면 영화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한다.

## ◇장애인인권운동과 장애인인권영화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사회적 현실과 싸움을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은 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는 장애인운동에서 '인권'이라는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됐다. 즉 이 말은 장애인당사자들의 권리 주장을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장애인인권영화제는 이러한 시기에서 장애인들이 문화향유의 권리 찾기 운동과 더불어 장애인당사자들의 사회적 현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과거 우리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영화관이나 영화제작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 영화관은 상영관 밖에 걸린 흥보그림이나 TV에서 나오는 광고가 전부라고 할 만큼 접근성이 0%에 가까웠다.

또한 영화제작은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진학률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학교 내 접근성, 활동장비 사용의 어려움과 접근 불가능한 활동여건 등으로 말미암아 아주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영화제작은 희망이 아닌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다.

제주에서 시작된 장애인인권영화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쉽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일반 대중에게 알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제1회 영화제에서 상영됐던 「끝나지 않는 짜움-에바다」란 43분짜리 다큐멘터리는 에바다라는 시설내 장애인의 인권유린과 성폭력 등 사망 사건의 은폐 등을 폭로했다. 이는 TV등의 매체에서도 토막뉴스로 잠시 보도가 되기도 했으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인권운동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 영화는 얼마 전 상영돼 법률개정까지 이뤄낸 영화 「도가니」의 전편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인권영화는 주변환경, 생활 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주로 다뤘다.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



2014년 10월 25일 제주장애인연맹은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장애인인권영화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까? 주로 이용되는 소재는 바로 이동권의 문제다. 사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막는 주된 요소이며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동권이다. 이동권의 문제는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도 연결되어 있어 장애를 신체적 손상을 입은 당시자의 문제로만 보는 잘못된 입장에서 생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발하고 해결하고자 제작된 장애인의 하루(2002년)는 장애인당사자의 평생 생활을 통해 겪는 어려움을 전술하며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로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려내어 큰 각광을 받은 작품으로 장애를 신체적 손상을 입은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환경의 문제로 장애가 발생하며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영화제가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을 무렵 이제 장애인들은 보는 것에서 직접 제작하고 싶어 하는 욕구로 변화했으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사전제작지원이다.

장애인인권영화제를 실시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장애인당사자들이 영화제작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기존 상업영화만을 접했던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독립영화>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영화제작에 대한 꿈과 희망이 결실이 사전제작지원인 셈이다.

2005년 전국 처음으로 사전제작지원을 시작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다. 사전제작지원은 제작비의 일부를 영화제작 전에 지원하여 영화제작의 어려움을 겪는 영상가들에게 영화제작의 꿈을 실현하고 장애인인권영화제에 상영함으로써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줄 예정이다.

현재까지 사전제작지원을 통해 30여 작품을 지원했고 영화제작을 통해 소개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작품 중 장애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사회의 현실을 알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

을 지적한 영화 「아~숨쉬기도 힘들구나」(2006년, 사전제작지원)는 장애 속 장애인, 차별 속에 차별 받는 장애여성의 이중 삼중의 고달픈 굴레 속에서 태아와 함께 가쁜 숨을 내쉬며 헐떡이를 미는 장애여성의 삶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포착하는 동시에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전히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있는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한 작품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인권의 문제, 이동권의 문제, 장애여성의 문제 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우리 장애인들은 복지라 칭하는 틀에 씌워 시혜와 동정을 받고 있다.

## ◇장애인 인권,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

2000년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우리 영화제에 이제는 해외 10여 개국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는 우리 연맹이 주구하는 어떠한 시련에도 변하지 않는 이념인 사람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권리확보 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그 중심에 인권이 있기 때문이다. 워즈니악(애플 설립자)의 말처럼 '첨단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발전시켜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법을 아는 것 만으로도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사람 중심이며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장애인의 권리인 것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복지라고 부른다. 노동을 해도, 운동을 해도, 문화행위를 해도 복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다양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기만히 앉아서 남이 내 권리를 쟁여주길 바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항상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복지라고 부른다. 노동을 해도, 운동을 해도, 문화행위를 해도 복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다양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기만히 앉아서 남이 내 권리를 쟁여주길 바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항상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가 청년 일자리 맞춤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24일 오후 3시 오션스 위즈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는 산업현장과 상급학교 진학의 연결고리를 이을 수 있는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진로문제를 진단하고자 마련됐다.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는 지난해 9월 독일·스위스의 도제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이는 시행 1년여만에 1700여개 기업이 참여할 만큼 급속도로 확산돼 사회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학별 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 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활용하기 위해 취업희망자를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일과 담당하는 제도다. 이는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을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로, 기업이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장기의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이를 국가(또는 해당 산업)가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력) 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주고용센터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진로문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진로설계를 위한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제주지역에서 시행되는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제주학아카이브에

### 『조선왕조실록』 제주 수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세계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된 제주관련 기사 1760건을 제주학아카이브에 텁재했다. 이는 제주향토사 연구와 더불어 학생·일반인을 상대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자료로 모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조선왕조실록』 제주기는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조정(朝廷)의 처리내용과 의견 등을 소상히 수록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제주 관련 자료는 역사를 이해하는 기록물을 넘어 제주의 경제성을 찾아 제주 전통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전승보전을 위한 귀중한 시금석 자료로서 그 활용가치가 높다.

아카이브시스템을 활용하면 많은 기록 중 단일 주제나 콘텐츠 관련 자료들을 두루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료 활용도 용이하다는 장점 또한 갖고 있다.

아라초대석 <10> 안지예 제주MBC 라디오 DJ

## "인생의 노래를 스스로 선곡하자"

"굿모닝 FM 제주 저는 여러분의 아침연인 안지예입니다."

모두가 정신없이 바쁜 아침, 학생들은 등굣길의 버스를 잡으려 헐的缘역 뛰고 어머니는 꿈나라를 해매는 아가들의 영정을 찰싹찰싹 때리며 하루가 시작된다. 누구에게나 사연이 가득한 상쾌한 아침. 이런 그들에게 하루를 열어주는 달콤한 목소리를 가진 그녀를 만났다.

매일 아침 8시, 안지예 DJ는 그녀만의 아기자기한 집으로 향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니터 안으로 살포시 날아온다. 'On-Air', 방송을 알리는 강렬한 붉은빛이 커지면 그녀는 씩 웃으며 아침을 알리는 마이크를 당긴다.

"DJ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꼬마숙녀는 어릴 적부터 음악과 함께했어요. 라디오는 항상 제 곁에 있었고, 학교 가는 길에 선곡표를 직접 짜보기도 했죠. 제가 라디오DJ가 됐을 때, 모두가 밀하더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DJ가 될 것 같더라" 하고 말예요! 하하."

전라북도 정읍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안지예씨는 어릴 적부터 꿈도 많고 욕심도 많은 소녀였다. 그녀는 다양한 경험을 쌓는 목표로 인생의 길을 선곡했다. 수업 대신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헤어져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동경하는 PD가 진행하는 강연을 듣기 위해 허겁지겁 가방을 쌍기도 했다. 누군가는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나왔어요' 하고 말하는 미인 경연 대회 또한 본인 스스로 몇 달을 준비해 참가했다. 주체할 수 없는 그녀의 끼는 2011년 광운대학교 재학중 참가한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에서 인기상을 받으며 절정에 달했다.

이후 방송국 입사를 목표로 아카데미에서 준비를 하던 안지예씨는 광운영상미디어센터 아나운서직을 시작으로 그녀의 제2부 방송에 막을 활짝 열었다. 제주MBC에서 라디오DJ를 구직한다는

소식에 자신 있게 지원을 했고 2012년 6월, 그녀가 꿈꿔왔던 라디오 DJ의 일을 맡게 됐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세상에!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싶었죠. 제주MBC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너무 기뻐서 친구한테 제주도까지 걸어가려면 몇 분이나 걸릴까하고 물어보기도 했더니요? 라디오부스에 들어서고 처음으로 진행한 방송은 한 시간이 일분처럼 지나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방송이 끝났지 뭐예요."

밝은 그녀의 목소리가 작은 섬에 울려 퍼졌고, 청취자들과의 새로운 이야기 또한 시작됐다. 안지예씨는 생방송 '제주가 좋다' TV리포터, 전국시대 '토요 풀러스' MC, 테마여행 길의 MC를 맡는 등 리포터로서의 활동 또한 겸하며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채워나갔다.

다양한 방송을 통해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이파금씩 안지예 DJ를 며느리 삼고 싶다며 아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방송국에 보내는 애청자 아주머니들이 있어 방송국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늘 밝은 모습으로 청취자를 맞이하는 그녀에게도 힘들 때가 있다고 한다. 그녀는 사적으로 힘든 일을 겪어도 방송에 피해가 갈까봐 틀어 내지 못한다.

"소위 말하는 '감정 노동자'의 고충을 느낀거죠. 그런데 오래된 청취자분들은 제 조그만 변화도 느끼고 무슨일 있느냐, 힘을 내라고 문자를 보내주곤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마운 마음씨에 다시금 힘을 내고 해야겠다고 해요."

헤드폰을 뚝 놀려온 꼬마숙녀는 어엿한 아가씨가 돼 자신이 꿈꾸던 마법 상자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늦잠을 즐기던 학생시절과는 달리 매일 아침이 행복하고 설렌다는 그녀, 안지예 DJ는 오늘도 세상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스의 볼륨을 높인다.

강수빈 기자



안지예 제주 MBC 라디오 DJ가 '굿모닝 FM 제주'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로컬뉴스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도민피해 없도록

### 국내 지원대책 방향과 로드맵 준비만전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11월 10일 타결된 한·중FTA에 대한 국내지원대책 방향과 로드맵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을 협상타결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부분을 포함해 개방화시대 농업의 제질개선과 경쟁전환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지원대책은 국책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영향분석을 하고, 여기에 농업이 제질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을 더해 수립될 예정이다. 주요골자는 △농가 압수정지 강회를 위한 밭직불금 확대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재해보험 확충 △안전·농식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GAP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활성화 △중국 소비시장을 공략하는 차별화된 수출전략

## 교수시론

이기석  
영어영문학과 교수

“

젊은 생명을 천황의 이름으로  
비치도록 한 시스템이  
미화되거나 친미되는 것은  
휴머니즘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평화를 말할 수 없다

”

## 돌하르방

박소연  
편집부장

“

제도 시행 전에 역기능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야  
정책 의도를 살릴 수 있어

”

## 독자기고

## 무조건적 성장보다 분배에 신경써야

이시형  
정치외교학과 1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부와 권력이 되돌림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은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쳐 현대 정보화 사회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지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기업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문어발식 기업 성장을 이루게 됐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복지만 보더라도 국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렇기에 오늘날은 특정한 계층과 사람들에게 집중되었던 부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2007년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학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진보는 기술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는 양질의 공교육을 통해서는 훌륭한 보건서비스에 의해서는 불평등을 줄이는 일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빌 게이츠의 말은 기술발전을 통해 인류가 진보되는 과정 중 궁극적으로 기술발전은 계층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중세 논란이 뜨겁다. 담배세 인상으로 촉발된 중세 논란이 내년에는 주민세나 교통세 등과 맞물려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담배세 같은 경우 국민 건강을 위한 필요조치라고 정부에서는

## 지란특공평화회관의 단상

“아리랑의 노랫소리도 멀리 어머님 나라를 그리워 하며 부서진 꽃, 꽃…”. 이것은 조선인 가마카제 11명을 기리며 지란특공평화회관 입구에 세워진 돌비석의 글귀이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조선인 출신 탁경현 소위도 큐슈의 최남단 가고시마현 미나미규슈 시의 바로 이 자리에서 1945년 5월 11일 히노마루(일장기) 머리띠를 질끈 매고 이별주 한 잔을 마시면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가마카제 특공대로서 제로선 전투기에 올라탔다고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마카제란 태평양 전쟁 말기(1944. 10~1945. 6) 제로선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적함대에 돌진하는 자살특공대로서 가고시마 지란비행장에서 출격한 특공대원 1,036명 전원이 오키나와 상공에서 불꽃의 사루라 꽂 멀어지듯 공중 분해되어 사라졌다. 그야말로 일본인들만이 가능한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전술로서, ‘이기고 돌아오라’가 아니라 ‘죽어서 돌아오라’는 지극히 비인도적이며 반인륜적인 행위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이다.

일본의 근대사를 일견해볼 때,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1904년 러일전쟁,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45년의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50여 년 동안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본다.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로 승승장구하다가 패

색이 짙은 태평양전쟁의 마지막 순간에 고육지책으로 내민 카드가 바로 가마카제 특공대가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그런데 바로 이 가마카제 특공대들의 ‘진정을 후세에 똑바로 전하며 세계 항구의 평화에 기여하도록 한 곳’으로서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지금의 지란특공평화회관이란다. 말이 회관이지 사실상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이 가마카제 특공대원들 전원의 사진과 그들이 출격 직전 썼던 유언 및 일기를 비롯한 수많은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출격 전야의 팔씨름>,<출격 20분 전의 식사>,<이별의 술잔>,<일기장에 유서를 쓰는 대원들>,<출격 전 강야자와 노는 특공대 소년> 등등의 사진들이 특별히 눈에 띈다. 이들 사진의 제목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지만, 사진 속의 특공대원들은 모두가 여유만만하고 천진스럽기까지 하고, 만면에 가득 미소를 띠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전시된 특공대원들의 유언장을 보면 한결같이 ‘천황폐하 만세’가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다. 따라서 이곳은 지나간 한 시대로서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지금이 순간에도 ‘텐노제이카 사요나라 반자이’가 서려 있는 현재진행형의 박물관이며 더 나아가서는 주변국을 침략했던 군국주의의 망령을 미래로까지 비추고 있는 박물관으로 보인다.

또한 이 특공평화회관을 상징하는 ‘통곡 맹세의 비’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이 진흔 위령과 통곡 속에서 우리의 국기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세계 모든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여기에 맹세한다”라는 메시지가 웬지 무심코 스쳐지지 않는 것이 그럴까. 가마카제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개념과는 아무리 해봐도 양립되지 않는다. 세계 인류의 영원한 평화는 차치하고 인간성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가마카제는 특공대원 개인의 평화도 담보할 수 없는 속성이 아니던가. 이 점이 바로 ‘특공’과 ‘평화’의 어색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지란특공평화회관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다. 70여 년 전 겨우 스무 살 안팎의 젊은 청년들의 생명을 천황의 이름으로 바치도록 한 시스템이 미화되거나 친미되는 한, 이는 근본적으로 휴머니즘에 대한 도전으로서 결코 평화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인 탁경현 소위가 출격 전날 밤 도리하마 부인 모녀와 저녁식사를 하며 불렀다는 ‘아리랑’이 차라리 더 솔직한 가마카제의 심경이 아니었을까. 출격 전날 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가마카제 특공대원들의 뇌리에는 천황 대신에 실제로는 고향 땅의 부모님과 약혼한 혜숙이, 여동생 노부꼬 등등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휴머니티 없는 평화란 없다.

## 미생물의 보고, 곳자왈

## 동문칼럼

김대신  
생물학과 89학번  
제주한의수목원  
임업연구원

곳자왈은 제주도의 화산활동 결과로 생긴 지역 중 오름만민이나 명확한 존재감을 갖는 곳이다. 그간 곳자왈 지역의 중요성은 지질학적인 특성과 동식물생태계의 특특함 때문에 많은 조명을 받아왔으며, 2012년 세계 자연보전총회(WCC)를 통해 ‘제주도 용암숲 곳자왈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라는 제주의제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 됐다.

곳자왈지역은 제주도의 화산활동 이후 긴 세월의 환경변화 속에서도 고스란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부터 지형을 이용한 주거공간이나 수렵활동 공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방목, 숲길과 같은 임업활동 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되어온 제주도만의 역사와 문화도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다.

지금 이 바윗돌 무더기처럼 정체된 듯 한 곳자왈 생태계의 숨겨진 부분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잘 알다시피 곳자왈의 불모의 환경, 취약한 기반에, 어떻게 호스스란 지금의 드록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을까. 여러 의구심에도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곳자왈을 연구하고 알리기 위한 순수한 뜻으로 전국에서 모인 ‘곳자왈미생물연구회’ 연구진들은 곳자왈에서 새로운 속(Genus)수준 미생물의 한 종류인 ‘베리박터 곳자왈엔시스(Variibacter gotjawalensis)’를 발견, 해의 논문을 통하여 보고하였다. 우리가 학창시절 생물시간에 배운 것처럼 속(屬)은 종(種)보다 높고 과(科) 그룹 다음에 오는 계급으로 세로운 종의 발견보다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곳자왈에서 발견되어 학명에 ‘gotjawalensis’라는 종소명을 붙여 제주도 곳자왈이 이 종의 원산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세계 공통명인 학명에 곳자왈이라는 제주 고유어가 들어가는 자체도 신기하고 흥미로운 일이다. 학술용어로서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더욱 기쁜 일이다. 또한 곳자왈 토양 속 미생물다양성은 아마존 비옥토양의 하나인 테라프레타(terra preta)만큼 다양하고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비교 분석되어 잠재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향후 곳자왈 미생물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된다면, 곳자왈 내부에 숨겨진 미소생태계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미생물이 없다면 이 지구는 온갖 종류의 쓰레기와 퇴적된 공간일 것이다. 미생물은 지구상의 오지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으며, 질병 등의 원인이 되지만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유용물질을 만드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활용도와 가치가 매우 높은 생물자원의 하나다. 곳자왈 지역에 분포한 많은 미생물도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잘 보호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보호지역으로의 지정과 같은 보다 확실하고 항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제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 064) 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nu.ac.kr

## 시각장애인에게 책 읽는 기쁨을

고은경  
식품영양학과 1

동네서점 대부분이 중고서적을 제공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중고서적의 거래가 쉽고 품질보증까지 해주는 곳은 인터넷 서점이 대부분이다. 특히 도서정가제의 시행으로 책의 가격이 제감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중고서점으로 사람 몰리기 마련이다. 이는 동네서점의 기반보다는 인터넷 서점의 특세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도서관이다. 도서정가제 개정을 접한 사람들 중 몇몇은 ‘서점보다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낡은 책을 새 책으로 바꾸기 위해서나 새로 나온 서적을 도서관에 추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다. 누구나 책을 읽고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공간이 도서관이다. 그런 도서관이 금전 문제로 적은 도서만을 제공할 수 있다면 빈부간의 지식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정책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그 역기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도서정가제의 개정에는 그런 준비가 없었다. 도서정가제와 사뭇 유사한 ‘단통법’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무조건 도입하고 본 것이다. 남은 것은 도서정가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그 결과를 지켜보고 보완하는 길 뿐이다.

## 선거구 획정, 제3의 독립기구가 해야

고진혁  
토목공학과 2

이해관계가 얹힌 의원들이 정개특위로 직접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이상한 형태의 선거구가 성립돼왔다. 이에 현법재판소는 인구증가분을 고려해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지역구 의원수의 증감문제, 주체와 시기, 개리멘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안을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현상) 문제 등 한국의회 정치 제도의 바탕이 되는 틀을 다시 짜는 논의까지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제안해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마음대로 수정해 개리멘더링 논란이 계속돼 왔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추천 2명, 한나라당 추천 4명,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명 등 혼연의원들 범위 안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왔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에 맡기며, 국회의원들이 직접 툴을 만드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주장처럼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본인들 이직 지정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고 걸을 수도 없습니까. 어린 시절 다른 형제들이 학교에 갈 때, 나는 집안에서 막히니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려던 중 2010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내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까. 선생님께서 네다섯 권의 책이 우편으로 배달돼 오는데 저에게는 그 책들이 선생님이고, 친구이고 살아가는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나는 눈 또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점자책과 읽어주는 책에 빠져서 하루가 짧기만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는 그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잠시 시간을 내 틈틈히 했을 뿐인 봉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이들에 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더해진다면 그 행복의 크기와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오랜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책 한권에 담긴 기쁨을 선물했으면 좋겠다.

온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봉사자들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에는 워드입력봉사 외에도 ‘낭독봉사’가 있다. 이 봉사는 책을 읽고, 녹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봉사들이 많은데 흥보가 부족해 시각장애인들의 독서에는 제약이 많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굳이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치기도 한다.

언젠가 시각장애인 점자나라 소식지에서 전국 시각장애인 독후감 공모전에서 당선된 독후감을 본 적이 있었다. 그 중 가장 감명깊었던 부분을 소개하고 싶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고 걸을 수도 없습니까. 어린 시절 다른 형제들이 학교에 갈 때, 나는 집안에서 막히니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려던 중 2010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내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까. 선생님께서 네다섯 권의 책이 우편으로 배달돼 오는데 저에게는 그 책들이 선생님이고, 친구이고 살아가는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나는 눈 또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점자책과 읽어주는 책에 빠져서 하루가 짧기만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는 그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잠시 시간을 내 틈틈히 했을 뿐인 봉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이들에 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더해진다면 그 행복의 크기와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오랜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책 한권에 담긴 기쁨을 선물했으면 좋겠다.

물론 외국의 사례는 문화가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나 구조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적합하다고 할 수 없으나 대부분 나라들의 독립기구 선택은 그만이 이유가 있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배울 것은 배우고 고칠 것은 고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3의 독립기구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여야 모두 선거구획정위를 국회로부터 독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인 선거구획정위를 두고 있는 나라에는 멕시코 밖에 없다. 대개 OECD 국가는 제3의 독립기구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이다.

물론 외국의 사례는 문화가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나 구조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적합하다고 할 수 없으나 대부분 나라들의 독립기구 선택은 그만이 이유가 있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배울 것은 배우고 고칠 것은 고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3의 독립기구를 개설해야 한다.

# 변화하는 수업시간의 모습 판서대신 **PP** 텐, 필기대신 **스마트폰**

빨강, 파랑, 노랑 가지각색의 펜으로 공책에 필기를 하던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수업시간 교수님의 판서를 정신없이 받아 적던 학생들의 모습이 이젠 좀처럼 찾기 어려워졌다. 가루 날리던 녹색 칠판 대신 화이트 보드가 그 자리를 차지한 지는 오래됐다. 이러한 작은 변화뿐만 아니라 수업 진행 방식과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도 모두 변했다. 교수도 칠판에 판서를 하며 수업하기보다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수업하는 등 더 이상 수업시간 풍경들이 예전 같지 않다. 교수가 칠판에 수업 내용을 판서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빠르게 필기하는 모습은 이제 어쩌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 될지도 모른다.

## ◇ 변화하는 강의실 풍경

우선, 수업을 하는 교수들의 강의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학생들은 학문에 대해 수동적으로 탐구하고 교수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발표와 토론 등 역동적이고 생방향적인 수업이 많이 생겨났다. 또한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를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도 많다. 이제는 혼자 앉아 공부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과 협심해 공부를 하고 자신의 발표 및 자료에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수업 형태가 많아졌다.

이주영(언론홍보학과 3)씨는 “앉아서 강의를 받는 것에만 익숙했는데 직접 우리가 준비한 발표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니 더 책임감이 들고 꿈꿔 공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교수의 수업이 전혀 없이 학생들의 발표만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교수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학생의 수업을 듣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강의 형태뿐만 아니라 교수의 강의 진행 방법에도 변화가 생겼다. 더 이상 칠판에 강의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이나 한글 파일을 띄워 그것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또 그런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 '하영Dreamy'에 올려 학생들이 쉽게 강의 내용을 다시 공부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갖기도 한다. 수업 시간 종일 짓을 하다가 교수를 올린 수업 자료를 통해서 쉽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이제 만인의 것으로 자리매김됐다. 스마트폰 하나면 두꺼운 사전과 여러 책들보다도 쉽게 빠르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도중 정보를 검색할 때 교수들도 적극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끼내 직접 검색해보는 것을 권유하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교수들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수업 내용을 활용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스마트폰은 강의실 풍경마저 바꿔 버렸다.

뉴미디어의 발달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많은 전자기기가 많이 보급됐다. 그로 인해 우리의 수업시간 모습은 전과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수업 내용을 필기한 공책을 서로 빌려가던 모습보다 수업 내용을 활용한 사진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하는 모습이 더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은 더 이상 수업시간 교수님의 수업 내용을 필기하지 않게 됐다. 학생들은 필기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교수님의 판서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

송민경(회계학과 3)씨는 “교수님의 수업 속도가 너무 빠른데다 수업 자료를 따로 올려주지 않아서 필기로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엔 너무 벽자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때

도 있다”며 “무음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면 수업에 방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일이 필기하지 않아도 꽤 편하다”고 말했다.

강의실 풍경을 변화시킨 데에는 스마트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 세라 귀를 풍곳 세우며 펜으로 필기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니라 종이와 펜 대신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고, 사진으로 활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로 간편하게 필기를 하거나 노트북으로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학생들도 많다.

교수의 원활한 수업 진행과 학생의 효과적인 수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교수와 학생 모두의 의견이다. 우리네 삶에 큰 자리를 잡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분명 명과 암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의 이점은 최대한 활용해 수업에 참여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 ◇ 변화하지 않은 모습들

교수의 강의 방식도, 학생들의 수업 태도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변화하지 않은 모습들도 존재한다. 아직도 제주대 내에는 판필과 칠판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열심히 판서를 하는 교수님도 있다. 또한 아직도 귀를 기울이며 수업 내용을 필기하는 학생들도 많다. 또한 여전히 수업시간에 교수 몰래 잠을 자는 학생들도 있다. 교수의 출석 점검에 재빠르게 대답하고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많다. 수업 시간 내에 열심히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과 열심히 딴 짓을 하는 학생들은 아직도 강의실 풍경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단지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이 열심히 수업을 듣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단이를 찾고, 정보를 검색하며 열심히 딴 짓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웹 서핑을 한다는 것이다.

유주연 기자

겨눴다.

박준영(간호학과 3)씨는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거나 최대한 활영 소리가 나지 않게 수업 내용을 활용하지 않고 너무 대놓고 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눈살이 찌푸려 진다”며 “수업 중 스마트폰에서 알림이나 벨소리, 게임 소리가 울려 강의 흐름이 깨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교수의 원활한 수업 진행과 학생의 효과적인 수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교수와 학생 모두의 의견이다. 우리네 삶에 큰 자리를 잡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분명 명과 암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의 이점은 최대한 활용해 수업에 참여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 ◇ 변화하지 않은 모습들

교수의 강의 방식도, 학생들의 수업 태도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변화하지 않은 모습들도 존재한다. 아직도 제주대 내에는 판필과 칠판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열심히 판서를 하는 교수님도 있다. 또한 아직도 귀를 기울이며 수업 내용을 필기하는 학생들도 많다. 또한 여전히 수업시간에 교수 몰래 잠을 자는 학생들도 있다. 교수의 출석 점검에 재빠르게 대답하고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많다. 수업 시간 내에 열심히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과 열심히 딴 짓을 하는 학생들은 아직도 강의실 풍경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단지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이 열심히 수업을 듣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단이를 찾고, 정보를 검색하며 열심히 딴 짓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웹 서핑을 한다는 것이다.

유주연 기자



## 투르 드 프랑스! 영화 속 프랑스 즐기기

11월21일부터 3일간 칠성로 옆 코리아극장에서 제5회 제주프랑스영화제가 열렸다. 이번 영화제는 '투르 드 프랑스 (Un Tour de France)'를 주제로 프랑스의 각 지방 고유의 문화와 환경, 사람들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 △ 시작을 알리는 <킬리만자로의 눈>

첫째날 개막식 전부터 영화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개막 전에는 프랑스 유학설명회가 열렸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교육진흥원에서 유학 자격과 혜택, 경험담 등을 설명했다. 이후 거리퍼레이드가 이어졌다.

페리에드에는 다국적 예술단체인 '살거스', 제주대학생으로 구성된 관악4중주단, 아코디언리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등 여러 아티스트와 함께 영화제를 즐기려는 관객들이 한데 어울려 행진을 했다. 개막 시각 10분전 이미 300여 석의 좌석은 프랑스영화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찾았다. 개막작 상영 전 고영림 집행위원장과 달니엘 깨풀리앙 주한프랑스대사관 영상교류담당관, 집행위원장들의 축사가 있었다.

축사와 함께 영화 <킬리만자로의 눈>이 상영됐다. 한국 미개봉작인 이 작품은 항구노동자들의 노조와 해고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주인공을 강도한 범인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를 요구한 개막작이었다.

### △ 모두가 즐기는 영화제

이튿날에는 4편의 영화 상영과 시음회·시식회, 상송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상영된 영화는 <비기닝>, <니스의 브리스>, <용감한 자에게 안식은 없다>, <르누아르>이다. 한국 미개봉작인 <니스의 브리스>는 프랑스에서 매우 유명한 코미디인 '장 뒤자르댕'이 주연으로 출연해 웃긴 코미디면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하다.

씨네토크를 진행한 <용감한 자에게 안식은 없다>는 죽음과 삶 그리고 꿈과 현실을 여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술적으로는 웨스턴, 느와르, 코미 등 여러 장르가 혼합된 형식이다. <르누아르>는 유명한 인상파 화가 오귀스트 르누아르를 다룬 영화이다. 그의 밀년을 그린 이 전자민 기자

3일간의 영화제는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5000명 이상의 관람객(주최 측 추산)과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은 소외된 제주의 원도심에서 중장년과 청년들이 서로 공유하는 문화를 창조하겠다는 고 위원장의 취지와 매우 부합한 축제였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감독과 배우 직접적인 영화 관계자 초빙 문제 등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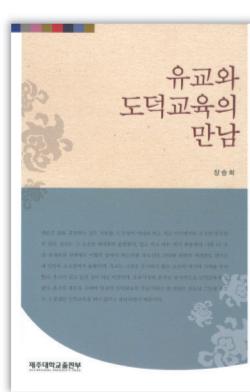
제주대학교 출판부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로 102 전화 064)754-2275 팩스 064)702-0549 http://press.jejunu.ac.kr



### 제주대학교 출판부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로 102

전화 064)754-2275 팩스 064)702-0549 http://press.jejunu.ac.kr



### 유교와 도덕교육의 만남

| 장승희 지음 | 477페이지 | 23,000원 |

매순간 삶을 결정하는 것은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소소한 일상일 수 있다. 입고 먹고 자는 데서 출발하여 나와 너·우리·존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친다.

『유교와 도덕교육의 만남』은 유교사상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도덕교육에 있음을 강조하며 오늘날 도덕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다. 유교의 현재성을 찾고 그 도덕교육적 의미를 탐색한다. 유교의 도덕교육적 위상을 점검하고 다른 영역들과의 통섭을 추구한 연구들을 정리했다.



### 핵심 범인세법

| 김봉현 저 | 228페이지 | 15,000원 |

법인이 기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인 세 실무에 대해 필수 세무처리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인의 세무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핵심 범인세법』, 범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었고, 범인세법의 기본적 내용을 학습하고 예제를 통하여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보다 쉽게 범인세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형사소송법 강의

| 수정 증보판 | 김현수 저 | 517페이지 | 20,000원 |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국가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수사와 재판 및 행정을 통하여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단계에서의 일정한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바 이와 같은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강의』은 판례의 동향과 학설의 흐름, 그리고 관련 개정 법률의 내용을 보충한 형사소송법 교재다. 형사소송법 강의를 쉬우면서도 능률적이고, 특히 중요 판례의 요지를 가급적 많이 인용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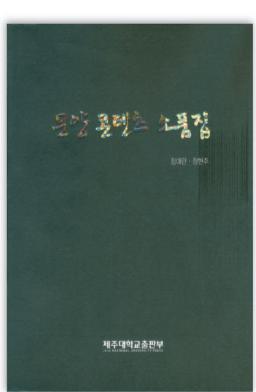


### 의·생명 과학의 법·윤리적 이해

| 김향미·손영수 공저 | 387페이지 | 20,000원 |

의학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복무하는 학문의 영역이다. 의료윤리학은 의료와 의·생명과학의 연구와 실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윤리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의학내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의·생명 과학의 법·윤리적 이해』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환자·의사·사회학과 과목의 강의 주제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의료윤리의 원리부터 설명의무의 법리, 인간생체실험, 의료법리 사례평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문화콘텐츠 소품집

| 장애란·장현주 지음 | 98페이지 | 12,000원 |

최근 전통문화원형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제주도는 지리적·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그 내용이 독특하고 풍부한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채 고유한 모습으로 간직되어 왔기 때문에 제주신화야 말로 문화콘텐츠의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다.

『문화콘텐츠 소품집』은 제주신화, 제주이미지, 문화도 문화원형을 응용한 문화콘텐츠 소품집이다.